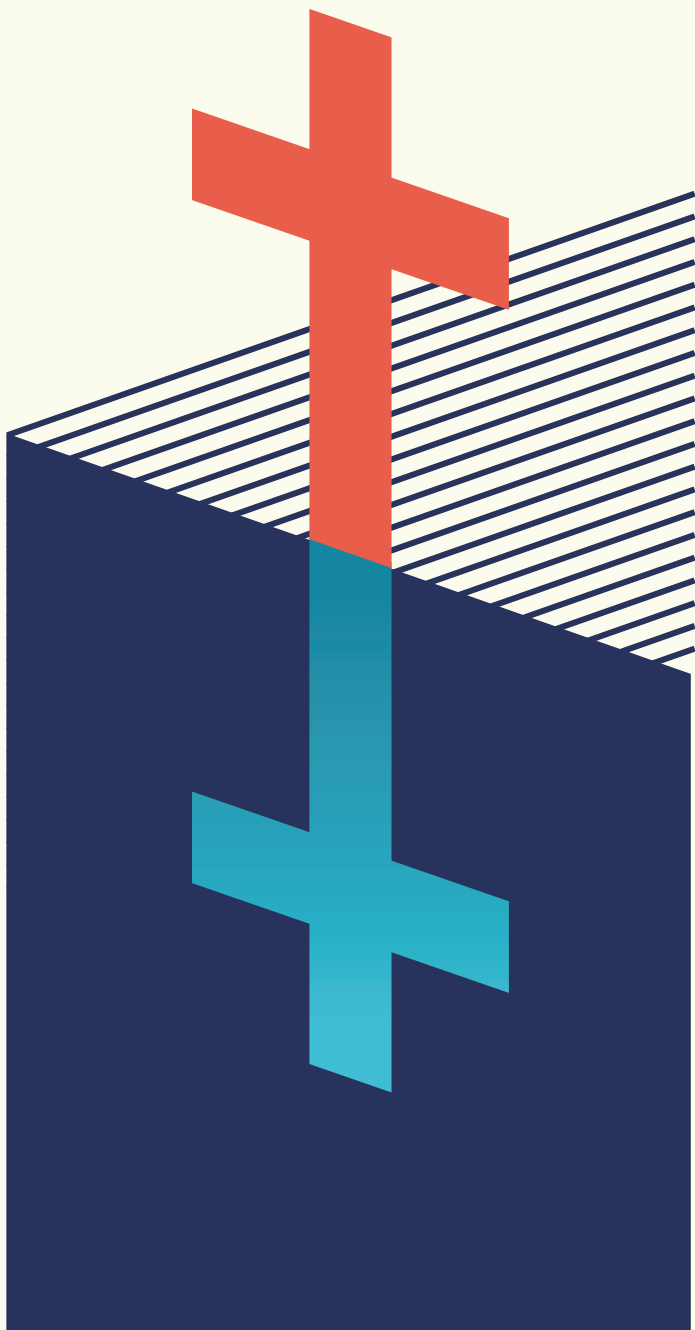


2024년
3월 3일

로마서 강해
갈릴리 공과



1. 정말 힘들었던 순간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던 한마디는?

2. 어린 시절 마음에 들었던 별명과 듣기 싫었던 별명은?

| 찬양 - 예수님 찬양

1.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합시다

2.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 대표기도

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롬 8:31-39)

2차대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성도의 집에 심방을 합니다. 때마침 독일군의 공습으로 집에 가지 못하고 그 성도의 집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그런데 그 집 딸 아이는 너무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목사님이 묻습니다. “얘야! 너는 무섭지도 않든?” 그 아이가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무시고 나를 지키시는데 나까지 안 잘 필요가 있는가요?”

성경에 보면 전쟁 같은 상황 속에서도 좀 전의 어린 아이 같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신 32:10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
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켰도다

광야는 모든 것이 노출된 상황입니다. 거센 칼바람이 몰아칩니다. 살을 태우는 태양이 내리쬡니다. 독사와 들짐승에게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곳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위해주셨고 자기 눈동자 같이 지켜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황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결코 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넉넉하게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환난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질병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넘어진 날 세워주고 찢긴 날 감싸주시기 때문입니다.

1.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

롬 8:31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가정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위하신다는 선언입니다.

시 56:1-2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힙니다. 당장 눈 앞에 보이는 것은 대적들의 칼과 창 뿐입니다. 눈 앞에 나타난 것은 채권자들의 돈 갚으라는 소리 뿐입니다. 눈 앞에 보이는 것은 전신에 퍼진 암덩어리 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눈에 보이는 칼과 창! 긴급한 부채와 질병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대적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 돈이라는 맘몬신보다 더 크신 하나님! 질병이라는 죽음의 세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출 3:12, 대하 32:7-8).

출 3:12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방식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요? 그 다음 구절에 나오죠!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셨습니다. 세상의 어느 누가 죄인을 위해 자식을 내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이처럼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차별 없고, 제한 없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체험한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심지어 죽음의 다가올지라도 당당하게 대면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23: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합니다. 1대 850입니다. 이런 1:850의 상황은 중국 무협지에도 나오지 않는 말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무모한 대결 앞에서 엘리야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왕상 18:21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1:850의 말도 되지 않는 무모한 대결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비밀은 무엇이 었는가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견고하게 붙드시고 호위하고 계시다는 확신!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절대 믿음! 이 믿음이 엘리야를 담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점검 질문

1. 우리가 절대절명의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자기 아들을 내 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롬 8:32 (1)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2)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3)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의 신입니다. 이 땅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언어,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모습을 가진 인간으로 보내주십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아들을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 제물로 드립니다. 죽어야 할 것은 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도대체 이 세상 어느 누가 죄 많은 피조물을 위해! 신을 배역한 짐승만도 못한 존재를 위해 자기 자식을 희생물로, 대속물로 바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큰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신의 죽음짜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모든 사람을 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명도 예외없이 사랑하십니다. 이방인도 사랑하십니다. 수렁에 빠져 온 몸이 망가진 자도 사랑하십니다. 탕자처럼 타락한 자도 사랑하십니다. 실패하고 좌절한 자도 사랑하십니다. 태양의 빛이 너와 나를 가르지 않고 비추듯! 인간을 위하여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는 적용되고 누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그런 차별적, 편협적 사랑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역한 요나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 베드로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간음한 여인까지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향으로 갑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존재! 꿈도 희망도 상실된 존재! 고기나 잡자! 옛 생활로 돌아간 것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지만 고기는 잡히지 않습니다. 아침이 밝아옵니다. 누군가 그들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들의 추위와 배고픔을 아신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불을 지피시고 생선을 굽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주님은 나의 필요를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 분은 내 모든 필요를 가장 적합한 시간에 채워 주십니다.

<인생과 역사의 해답은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물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물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이 우리의 필요를 온전히 채워주지 못합니다. 믿음의 주요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점검 질문

1. 바울이 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세 가지 모습은 무엇인가요?

3.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누가 고발하고 누가 정죄하리오?

롬 8:33-34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 누가 정죄하리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어느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없습니다. 심지어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무리들이 간음한 여인을 끌고옵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그 여인을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이 때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요 8:11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모든 존재에 대한 심판의 권한을 가진 주님께서도 그녀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하물며 도대체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은혜가 떨어지고 성도가 믿음이 떨어지면 서로 물고 혈뜯는데 재미를 붙입니다. 서로 뒷담화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시간을 쏟게 됩니다.

바라건대 우리 갈릴리 공동체는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바뀌어도 끝까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풀어주고 품어주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모였다 하면 기도를 하십시오! 모였다 하면 먼저 품어주고 사랑하십시오! 모였다 하면 서로 섬기고 희생하십시오!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정죄함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택함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란다” 그저 무목적적 존재가 아니라 특별한 그 분의 계획 아래 “나를 베를 짜듯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롬 8:1-2).

롬 8:14-15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요 상속자입니다. 이 우주적인 신분 앞에 서 있는 우리를 누가 감히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 하는 판결을 내리시는 분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점검 질문

1.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4.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롬 8:35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롬 8:37-39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콘스탄티노플의 원로 크리소스토스는 타협하지 않는 설교로 <황금의 입>이라는 명성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 설교로 인하여 권력자들의 눈에 벗어나게 됩니다. 황제 앞에 끌려옵니다. 계속 예수를 믿는다면 당신은 영원히 추방되리라고 위협을 받습니다.

이 때 크리소스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를 쫓아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내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황제가 말합니다. "그러면 나는 너를 죽일 것이다."

"아니오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네 보화를 빼앗을 것이다."

"아니오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보화는 하늘에 있으며, 내 마음도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를 사람들과부터 쫓아낼 것이고, 그러면 네게는 아무 친구도 남지 않을 것이다."

"아니오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늘에 친구를 가지고 있고, 어느 누구도 나를 그 친구로부터 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에게 어떤 해도 끼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견고하여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본문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가로막는 일곱 가지 장애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입니다.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환난이란 말은 원래 로마 시대에 곡식을 타작할 때 사용하던 '트리볼룸'이라는 타작기, 도리깨를 가리킵니다. 땅에 곡식을 깔아 놓고 도리깨로 힘껏 내리치면 곡식알들이 전부 떨어지게 됩니다. 환난은 마치 성도들을 땅에 눕혀 놓고 도리깨로 내리쳐 살점이 떨어지게 만드는 고문이었습니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다가 도리깨로 얻어 맞듯이 얼마나 많이 맞았던지 거의 송장이 되다시피 하였습니다. 감옥에도 갇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운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5. 결론: 넉넉히 이기느니라

롬 8:37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송명희 시인이 계십니다. 주옥 같은 찬양시를 참 많이 쓰신 분입니다. 소아마비입니다. 깨질 것 같은 연약한 육신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누구보다 기쁨과 승리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죽어가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주저앉은 자들에게 일어날 용기를 주었으며 마음이 갇힌 자에게는 하늘의 영광을 불어 넣어 주었습니다.

그가 지은 유명한 찬양시가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는 재물이 없는 자였습니다. 돈을 벌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인의 마음 속에 내주하

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매일같이 그의 존재를 휘감고 계셨습니다. 그녀는 늘 풍성했고 에너지가 넘쳐났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맞습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난했고 장애가 있었고 언어가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은 남이 갖지 못한 재능, 믿음, 비전을 시인에게 주셨습니다. 시인은 자기에게 다가오신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마음껏 사랑을 받으며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은 그런 송명희 시인을 꺾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를 부하게 만드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를 당당하게 만드는 것은 학벌과 스펙이 아닙니다.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온전하게 만드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 패배주의에 물들어 사는 것은 아닙니까? 너무 돈 돈, 성공, 출세, 스펙, 여기에 집착하여 사는 것은 아닙니까? 남과 비교하며 너무 주눅든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품은 자들이고 하나님을 모신 자들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꿀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그 어떤 조롱과 수치가 다가올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줄 믿습니다.

점검 질문

1. 무엇이 송명희 시인을 죽음과 환난에서도 강하게 당당하게 만들었나요?

적용 질문

1. 만약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 본 적 있다면, 어떤 경우인가요? 그리고, 어떻게 그 의심을 쫓아 버릴 수 있었나요?
2.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묵상의 시간을 갖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서로 나누어 봅시다.

| 공동체 기도

1. 3월부터 시작되는 사역들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부흥이 있게 하소서.
2.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며, 기도는 사라지지 않음을 믿으며 더욱 기도하게 하소서.
3. 사순절 기간 더욱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복음을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 나는 네 하나님이니 - 모든
 환난 가운데 - 너를 지키는 자라 - 두려워하지 말라 - 내가 널
 도와 주리니 - 놀라지 말라 - 네 손 잡아 주리라 - 내가 너를
 지명하 - 여볼렀나 - 너는 내 것이라 - 내 것이라 - 너의
 하나님이라 -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 너를 사랑하 - 는 네여호와와라 -

NOTE.

